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로씨야연방 대통령 블라지미르 블라지미로비치 푸틴각하와 상봉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4월
25일 로씨야연방 대통령
블라지미르 블라지미로비치
푸틴각하와 상봉하시였다.

조로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역사적상봉이 이루어질 울
라지보스토크시의 루쓰기섬
에 위치한 원동련방종합대학
청사앞에는 두 나라 국기들이
세워져있고 로씨야연방무
력 특해공군명예위병들이 정
렬해있었다.

조로 두 나라사이의 친
선관계를 새시대와 새로운
정세의 요구에 맞게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하여 로씨야
연방을 공식친선방문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블라지미르 블라지미로비치 푸틴
대통령이 따뜻이 영접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푸틴대통령과 감격
적인 첫 상봉을 하시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
시였다.

푸틴대통령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부리깊은
두 나라 친선의 강화발전을 위해 로씨야연방방
문의 첫 자욱을 새기신데 대하여 열렬히 환영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푸틴대통령이 바쁜 정치
일정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더욱 증진시키고 새 세기를
지향한 조로친선관계의 발전
을 추동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조치들에 대하여 합
의하시였으며 당면한 협조문
제들을 진지하게 토의하시
고 만족한 견해일치를 보시
였다.

또한 국가건설과정에 이
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교환
하시였으며 조선반도정세와
국제관계분야에서 나서는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서로
의 견해를 공유하고 공동으
로 정세를 관리해나가기 위
한 솔직하고 기탄없는 의견
을 나누시였다.

조로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서는 이번
상봉과 회담이 오랜 친선의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보다 공고하고 건전하게 발

변강도시에까지 찾아와 친절히 맞이해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와 푸틴대통령각하는 두
나라 국기를 배경으로 뜻깊은 기념촬영을 하시
고 각기 두 나라 지도간부들과 인사를 나누시
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푸틴대통령과 따뜻한
담소를 나누시며 회담장으로 향하시였다.

조로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서는 회담장에 세워
져있는 두 나라 국기들을 배경으로 또다시 뜻깊은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과 로씨야연방 대통령 블라지미르
블라지미로비치 푸틴각하사이의 단독회담이 진행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와 푸틴대통령각하는 친선
적이고 허심탄회한 분위기속에서 건설적인 담화를
나누시였다.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서는 각기 자기 나라의 형
편을 통보하시고 호상 이해와 신뢰, 친선과 협조를

전시키며 제2차 조미수뇌회담이후 불안정한 조선
반도정세를 전략적으로 유지관리해나가는데서 중
요한 의의를 가지는 유익한 계기로 되였다는데 대
하여 일치하게 평가하였다.

담화는 격의없는 친근한 감정속에 오랜 시간 진
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와 푸틴대통령각하는 역사적
인 첫 상봉을 통하여 훌륭한 친분관계를 쌓으시고
전략적이며 전통적인 조로친선의 뉴대를 일층 강화
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뿌썬대통령각하와 회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4월 25일 로씨야연방 대통령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뿌썬대통령각하와 회담하시였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리용호외무상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참가하였다.

로씨야측에서는 외무상 세르게이 라브로프, 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유리 드루트네브, 대통령행정부 부책임자 겸 대통령공보관 드미트리 메스코브, 대통령대외정책담당 보좌관 유리 우샤코브, 교통상 예브게니 지프리호, 원동 및 북극발전상 알렉산드르 쯔줄로브, 동력성 부상 아나톨리 야놉스키, 로씨야철도주식회사 총사장 올레그 벨로조로브, 우리 나라 주재 로씨야연방 특명전권대사 알렉산드르 마제고라가 참가하였다.

석상에서 뿌썬대통령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초청을 수락하시고 로씨야를 방문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사의를 표하면서 로조친선의 력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려는 로씨야정부의 확고한 립장과 의지를 피력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뿌썬대통령의 초청에 의하여 친선적인 립방인 로씨야를 방문하게 된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하시면서 이번 상봉이 조로관계사의 변함없는 흐름을 재확인하고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보다 공고하고 전진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고귀한 전통을 이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조로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는것은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우당당한 책임이라고 하시면서 선대령도자들의 뜻을 받들어 조로관계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 결심을 표명하시였다.

회담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쌍무적협조를 가일층 확대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토의되였다.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서는 최고위급상봉과 접촉을 포함한 고위급래왕을 강화하며 두 나라 정부와 국회, 지역, 단체들사이의 협력과 교류, 협조를 다양한 형식으로 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논의하시였다.

쌍방은 조로정부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 위원회의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며 두 나라사이의 호혜적인 경제무역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기 위하여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인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또한 중대한 고비에 직면한 조선반도 정세추이에 대하여 분석평가하고 조로 두 나라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려정에서 전략적의사소통과 기술적협동을 잘해나가기 위한 방도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얼마전에 진행된 제2차 조미수뇌회담에서 미국이 일방적이며 비선의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최근 조선반도와 지역정세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원점으로 되돌아갈수 있는 위험한 지경에 이른데 대하여 지적하시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전적으로 미국의 차후태도에 따라 좌우될것이며 우리는 모든 상황에 다 대비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앞으로 서로의 리해와 뉴대를 더 밀접히 해나가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전략적인 협동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뿌썬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할것을 초청하시였으며 초청은 쾌히 수락되였다.

쌍방은 호상 관심사로 되고있는 중요문제들에 대하여 신뢰적이며 우호적인 분위기속에서 심도있는 대화를 진행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환영하여 로씨야연방 대통령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뿌썬각하께서 성대한 연회를 차리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환영하여 로씨야연방 대통령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뿌썬각하께서 4월 25일 성대한 연회를 차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김평해, 오수용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인 리용호 외무상,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리영길 육군대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비롯한 수행간부들과 수행원들이 연회에 초대되였다.

또한 김형준 로씨야연방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조석철 올라지보스토크주재 우리 나라 총영사와 령사관 성원들이 초대되였다.

로씨야측에서 외무상 세르게이 라브로

프, 정부부수상 겸 원동련방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유리 드루트네브, 대통령행정부 부책임자 겸 대통령공보관 드미트리 메스코브, 대통령대외정책담당 보좌관 유리 우샤코브, 교통상 예브게니 지프리호, 원동 및 북극발전상 알렉산드르 쯔줄로브, 동력성 부상 아나톨리 야놉스키, 로씨야철도주식회사 총사장 올레그 벨로조로브, 우리 나라 주재 로씨야연방 특명전권대사 알렉산드르 마제고라를 비롯한 관계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뿌썬대통령각하의 안내를 받으시며 연회장으로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조로친선관계발전의 새로운 력사를 펼쳐나가게시는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을 우렁찬 박수로써 열렬히 환영하였다.

연회에서는 뿌썬대통령각하가 축하연설을 하였다.

뿌썬대통령은 로씨야연방을 방문하신 김정은동지와 조선의 모든 벗들을 다시 한번 열렬히 환영하면서 두 나라 친선의

력사와 선대수령들의 뜻깊은 상봉들을 감회깊이 추억하였다.

뿌썬대통령은 지난해에 복잡한 국제정세속에서도 두 나라 외교관계설정 70돐을 뜻깊게 기념하였다고 하면서 김정은동지의 발기에 의하여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안정되어가고있으며 로씨야는 조미대화실현과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하였다.

(3면으로 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환영하여 로씨야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푸틴각하께서 성대한 연회를 차리였다



(2면에서 계속)
 푸틴대통령은 로씨야는 조선반도에서의 긴장을 해소하고 동북아시아지역전반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속 호상 협력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하면서 국제사회와 모든 관심있는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가밑에 반도와 지역의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번영을 이룩해나가기 위한 목적을 반드시 달성할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답례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푸틴대통령 각하께서 친절히 초청해주고 온갖 성의를 다하여 뜨겁게 환대해주고있는데 대하여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두 나라 인민은 일찌기 지난 세기 항일대전의 공동의

투쟁속에서 전우의 정으로 굳게 결합되었으며 영웅한 붉은군대 장병들은 조선의 해방을 위하여 자기의 더운 피를 아낌없이 바쳤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은 년대와 세기가 바뀌어도 조선해방의 성스러운 위업을 고귀한 생명을 바친 로씨야인민의 아들딸들의 숭고한 국제주의적위훈을 잊지 않고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오늘 푸틴대통령 각하와 조로친선관계발전과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문제들 그리고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고 의미깊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시면서 전략적이며 전통적인 조로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이에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려는것

은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며 전략적방침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형제적인 로씨야인민이 푸틴대통령각하의 정력적인 령도와 완강하고 굳센 의지를 받들어 내외의 온갖 도전들을 물리치면서 강력하고 번영하는 로씨야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괄목할만 한 성과를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여기고있다고 하시면서 푸틴대통령각하의 즐기관 령도밑에 로씨야가 반드시 강력하고 존엄높은 위대한 나라로 부흥번영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시였다.
 연회는 시종 친선의 정이 뜨겁게 흘러 넘치는 화기에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연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로씨야방문을

환영하여 로씨야예술인들이 성의껏 준비한 예술공연이 있었다.
 우리 인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로씨야 민족근위군아카데미야협주단, 크레믈리 발레무용구장, 국립아카데미야볼쇼이극장, 게. 에프. 보노마렌코명칭 크라스노다르필하모니합창단 등 관록있는 예술단체들이 출연한 공연무대에는 로씨야민요들인 《사립문》, 《검은 농동자》, 《젊은이들, 말을 풀어주라》와 노래와 춤 《로씨야시장》, 기악곡 《칼춤》, 《로씨야춤》, 조선무용 《부채춤》, 발레무용 《소백초춤》, 무용 《광대춤》 등 민족적이고 전통적인 특색있는 종목들이 울랐다.
 공연은 친선의 노래 《모스크바—평양》으로 마감을 뜻깊게 장식하였다.
 출연자들은 열정적이며 진정에 넘

친 공연을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로씨야인민의 환대의 뜻을 표시하였다.
 경쾌하고 랑만적이며 민족성이 구현된 공연은 풍부하고 세련된 형상과 높은 예술적기교로 하여 관람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와 푸틴대통령 각하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 출연자들에게 꽃바구니를 전하시고 감사의 뜻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친선적인 로씨야의 벗들이 열렬하고도 따뜻한 환대를 베풀어준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사의를 표하시고 푸틴대통령각하와 새로운 상봉을 약속하시며 작별의 뜨거운 인사를 나누시였다.

본사기자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발표 1돐을 맞으며

사설 평화번영과 통일을 위한 거족적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치자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한 역사적투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있는 오늘 온 겨레는 판문점선언발표 1돐을 맞이하였다.

돌이켜보면 주제 107(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이 채택 발표된 것은 온 강토와 세계를 진감케 한 커다란 민족사적사건이었다. 이날을 기하여 적대와 대결의 과거는 물러가고 화해와 평화번영, 통일을 향한 민족사의 밝은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북한의 수뇌분들께서 판문점선언에 서명하신 후 함께 손을 높이 쳐드신 장면은 력사에 길이 새겨질 불멸의 화폭으로 되었다.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에서 이런 놀라운 전변이 이루어지게 된것은 조국통일을 자신의 숙고한 사명으로 간주하시고 민족과 통일을 위해 헌신의 자욕을 새겨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대범한 결단과 탁월한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2017년이 저물어가는 시기 우리 민족은 전쟁의 문어구에 서 있었다. 세인은 《3차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러던 긴박하고 위험한 정세를 한순간에 화해와 평화에 돌리놓으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난해 신년사에서 확고부동한 조국통일의지와 뜨거운 민족애가 담긴 격조 높고 아름다운 화해와 평화의 보따리를 안겨주시었다.

그이께서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진행되는 남조선에 고위급대표단과 예술단, 선수단, 응원단도 편이어서 파견해주시어 불신과 대결의 어둠을 날려버리시고 화해와 단합의 불씨를 지피주시었다. 그리고 평양에 온 남측에 올랐던 공연도 몸소 보아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남조선대통령특사대표단 성원들도 접견해주시며 북남수뇌상봉과 관련한 만족한 합의를 보시었다.

온 겨레의 마음과 마음이 판문점으로 달려가던 지난해 4월 27일에는 남조선대통령과 함께 판문점분리선을 자유로이 넘나드시며 조선민족의 자주통일의지와 힘을 과시하시었고 방명록에 뜻을 친필로 남기시어 모두의 가슴을 울리게 해주시었다. 북과 남이 평화와 번영을 함께

가꾸어가는 마음을 담아 판문점에서 소나무도 함께 심으시고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에 친히 서명하시었다.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위업을 더욱 추동해주시려고 판문점에서 두번째로 되는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진행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9월에 또 다시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회담을 마련하시어 화해와 통일의 보다 풍성한 수확을 안아오도록 하시었다.

한해동안에 무려 새차레에 걸치는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마련하시고 평화번영과 통일의 새로운 리정표인 판문점선언과 그 실현을 위한 실천강령인 9월평양공동선언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과 인민, 겨레를 위해 쌓으신 영구불멸할 거대한 업적이다.

조선반도에 더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를 열어놓으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담아 채택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북남사이에서 무력에 의한 동족상쟁을 종식시킬것을 명확한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으로서 함으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북과 남의 체육인들이 국제경

기대회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힘을 펼칠 때 예술인들은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민족적화해와 통일열기를 뜨겁게 고조시키었다. 여러가지 장애와 난관을 파급하게 극복하면서 철도, 도로, 산림, 보건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들을 추진하여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다시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회담을 마련하시어 화해와 통일의 보다 풍성한 수확을 안아오도록 하시었다.

지난해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에서 일어난 극적인 전환은 우리 민족끼리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 나간다면 조선반도를 가장 평화롭고 길이 번영하는 민족의 참다운 보금자리로 만들수 있다는 확신을 온 겨레에게 안겨주었다.

지금 온 민족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철저히 리행되어 조선반도의 평화번영을 위한 다시 력사적인 대결을 막아주시어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은 민족의 지향과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기대에 너무나 부실한

행동으로 화담하고있으며 북남관계를 판문점선언발표이전시기로 되돌려보려고 모지모지를 쓰고 있다.

미국은 북남합의리행을 저들의 대조선제압박정책에 복종시키려고 각방으로 책동하고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앞에는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아가는 것이 전쟁의 위험이 짙어가는 속에 파국으로 치닫던 과거로 되돌아가는가 하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현실은 민족의 운명과 전도,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현사태를 수습방관할수 없으며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에 맞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자면 그 어떤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도 민족의 총의가 집약된 북남선언들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철저히 리행해나가는 리장과 자세부터 바로가져야 한다.

역사적인 시정연설에 천명된 북남관계와 관련한 리정에는 현시기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도평화번영의 앞길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를 타개하고 북남선언리행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공화국은 여전히 남조선당국과 손잡고 북남관계를 지속적으로 공고한 화해협력관계로 전환시키고 온 겨레가 한결같이 소원하는대로 평화롭고 공동번영하는 새로운 민족사를 써나갈것을 바라고있다.

조성된 불미스러운 사태를 수습하고 북과 남이 힘있게 마련한 관계개선의 좋은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그것이 평화와 통일의 의미있는 결실로 빛을 보게 하자면 자주정신을 흐리게 하는 사대적근성과 민족공동의 리익을 침범하는 외세의존정책에 총지부를 찍어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판문점상봉과 9월평양상봉에의 초심으로 되돌아와 북남선언의 성실한 리행으로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미국이 강요하는 《속도조절》에 추종할것이 아니라 모든것을 북남관계개선에 복종시켜야 하며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계속 살려나가자면 적대적인 내외반동 일, 반평화세력들의 준동을 짓부

서버려야 한다.

미국과 함께 허울만 꾸며놓고 이미 중단하게 된 합동군사연습까지 다시 강행하면서 은혜된 적대행위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의 무분별한 책동을 그대로 두고, 일방적인 강도적요구를 전면에 내놓고 관계개선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있는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오만과 적대시정책을 근원적으로 청산하지 않고서는 북남관계에서의 진전이나 평화번영의 그 어떤 결실도 기대할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운명과 전도를 걸고 북남관계개선과 평화통일로 향한 력사적호를 도전해나서는 미국과 남조선보수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엄중한 시련과 난관이 우리 겨레의 앞길을 가로막고있지만 정의도, 최후승리도 우리 민족에게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신심드높이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인군을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사업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고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하루빨리 이루어야 할것이다.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펼쳐주시어

지금으로부터 꼭 한해 전 판문점에서 진행된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은 조국통일운동사에 길이 빛날 사변중의 사변이라 할수 있다. 이날을 기점으로 북과 남은 과거의 오랜 불신과 대결의 늪에서 벗어나 화해와 평화번영, 통일로 나아가는 력사의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

대결과 긴장이 한껏 서려있던 판문점은 이제 평화와 통일의 상징으로 바뀌었다.

온 겨레가 이날의 감격에 대해 이야기하고있으며 온 세계가 조선민족의 화해평화노력에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다.

보다. 없이 없던 판문점에 진정한 평화의 봄, 따스한 민족의 봄이 깃들게 된것은 조국통일을 자신의 숙고한 사명으로 여기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대범한 결단과 평화통일의지, 넓은 포용력, 뜨거운 민족애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

2017년 12월, 저물어가던 이해에 형성의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위구속에 잠들지 못하고있었다. 조선반도에서 민족과 세인의 운명을 위협하며 전쟁도화선이 각일각 타들어가고있었던것이 아니라 그 우려와 위구는 2018년 새해의 아침과 더불어 기대와 환희로 바뀌게 되었다. 북남관계대전환을 알

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신년사가 온 행성에 울려 퍼졌것이다.

새해는 우리 인민이 공화국창건 일흔흔을 대경사로 기념하게 되고 남조선에서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열리는것으로 하여 북과 남에 다같이 의의있는 해이라고, 우리는 민족적대사들을 성대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도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울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어야 한다고.

정녕 그날에 울린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는 겨레의 얼어든 가슴가슴을 녹여주는 겨레사랑의 뜨거운 신년사였으며 북남관계의 앞길을 활기 밝힌 해빛과도 같은것이였다.

신년사에서 제시된 획기적인 제안은 대범한 실천으로서 이어져 공화국의 예술단, 선수단, 응원단이 편이어서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열리는 남조선에 파견되었으며 민족화해와 단합의 거센 불길을 일으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평양 방문한 남측예술단의 공연도 보아주시고 남조선대통령특사대표단 성원들도 몸소 접견해주시며 수뇌상봉과 관련한 만족한 합의를 보시었다. 그리고 해당 부문에서 이와 관련한 실무조치들을 속히 취

할때 대한 강령적인 지시도 주시었다.

그렇게 마련된 판문점에서 북남수뇌상봉이였다. 온 겨레와 세인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력사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한결같은 판문점분리선을 넘으시었다. 이것은 우리 민족사에 처음으로 기록되는 감동깊은 일로서 북남이 힘을 합치면 외세가 만듦은 분단선, 분열의 장벽도 순간에 허물어버릴수 있음을 전세계에 과시한 판문점수뇌상봉의 뜻깊은 화폭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판문점에 한평생 조국통일을 위해 애쓰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과 념원을 안으시고, 분열의 몸부림치는 온 겨레의 절절한 통일소원을 안으시고 력사의 크나큰 발걸음을 찍으시었다.

《새로운 력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력사의 출발점에서》

김정은

2018. 4. 27 《평화의 집》 방명록의 뜻깊은 이 친필이 말해주듯 위대한 판문점 나가지 않는 판문점에 몸소 오시어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으로 민족의 새 력사창조를 위한 장엄한 출발의 신호총성을 울려주시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조선반도에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시대가 열린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오늘 우리 만남에 대한 북남인민들의 기대가 큰데 꼭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앞으로 수시로 만나고 오가면서 마음을 합치고 의지를 모아 시 결린 문제들을 풀어나가자고 하시면서 내가 오늘 넘어선 분단선은 높지도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보던 없지 않게 될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군사분계선표의사가 가까이에 있는 판문점 《도보다리》를 산책하시고 당담도 나누시는 뜻깊은 장면은 대결과 긴장의 한복판인 판문점에서부터 화해와 평화의 새 력사를 쓰고 머지않아 판문점 집의 작은 오솔길을 자주통일의 대문으로 되게 하시려는 그이의 응지와 확고부동한 의지를 보여주는것으로서 온 세상의 감동을 자아내었다.

지금 우리 겨레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기치로 높이 추켜든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의 구절마다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주선언이 빛발치고 민족단합의 경률과 정신이 어려있어 읽어볼수록 가슴이 후터워지고 민족의 래일에 대한 환희의 감정에 휩싸이게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판문점상봉이 있었는지 불과 29일만에 또다시 력사의 땅

판문점에서 제4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마련하시고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의 흐름을 더욱 힘있게 추동해주시었다.

력사의 땅 판문점에서 두차례에 걸쳐 진행된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지켜보면서 해외의 온 겨레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천리혜안의 예지와 뜨거운 민족애, 넓은 포용력, 특출한 정치실력에 누구나 감탄을 금치 못하

였다. 남조선 각계층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은 《김정은위원장의 통근 결단이 평화의 새 력사를 만들었다.》, 《담대한 지도자의 기질을 타고나시었다.》, 《민족의 미래가 기대되는 위인이시이다.》, 《민족의 자랑으로 떠날줄 지도자이다.》 등으로 격찬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범한 결단과 확고부동한 통일의지에 의해 판문점의 봄은 평양의 풍성한 가을로 이어지고 9월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되어 온 겨레를 더욱 기쁘게 해주었다.

지금 우리 겨레는 조선반도의 정세흐름을 확고하게 주도하시는 절세의 예주자, 천출위인을 모시어 평화번영의 려정이 더 출기차게 이어지고 자주통일의 새 아침이 기어이 밝아오게 되리라는 굳은 확신과 락관에 넘

본사기자 주일봉



《김정은위원장의 멋있는 모습에 민족의 미래가 있다》

—남 녀의 각계가 칭송—

역사적인 판문점수뇌상봉과 회담. 4.27선언의 탄생은 온 겨레와 세계를 격동케 한 거대한 사변이었다.

당시 남조선인론들과 각계 인민들은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로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력사를 써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위인적풍모에 존경과 흠모, 경탄을 금치 못해 하였다.

남조선의 인터넷들에는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흠모하여 각계층 군중들이 쓴 《멋있는 모습에 민족의 미래가 있다.》, 《글씨체가 새드르

이상하게 마음에 드네.》, 《력사에 길이 남을 세기적인 순간이다.》, 《남북정상이 더이상 조선반도에 전쟁이 없다는 판문점선언에 수고하시고 서로 포용하시는 장면은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는 명장면이 되었다.》, 《김정은위원장은 솔직하고 대담하였으며 여유와 유모아를 선보이기도 하였다.》, 《김정은위원장은 호방하고 호랑장 성격으로 화끈했다.》, 《김정은위원장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악수를 하는 모습에 볼품없었다.》, 《한민족이라는것을 실감케 한 력사적인 장면이었다.》는 등 감동여린 글들이 련속 실리었다. 《오마이뉴스》

년 4월 27일 하루는 감동, 감동, 감동의 련속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남북정상회담이 처음으로 만나 손을 잡고 판문점분리선을 넘는 장면이였다. 이날 김정은위원장은 군사분계선을 6차례나 넘나들었다.》라고 전하였다.

북 남수뇌상봉과 정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나 비범한 한 정계인사는 《김정은위원장의 모습은 정말 감격적이었다.》고 도로 하였고 평화협정운동본부, 평화통일시민연대를 비롯한 단체들과 개별적인사들은 《조국통일과 평화번영, 세계평화의 대문호를 열어주시신 김정은위원장께 최대의 경의와 감사를 드린다.》, 《남북정상회담이 곧게 잡은 손

을 절대로 놓지 말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에서 끝까지 함께 하길 바란다.》고 하였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아흔살의 한 로인은 언론과의 회견에서 《북에서 남으로 걸어오는 김정은위원장의 모습을 보니 신기하고 눈물이 났다. 생전에 그런 장면을 못 볼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평화가 당장 코앞에 온것만 같아 흥분된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방명록에 평화라고 쓰신 글이 TV방송화면에 비쳐지자 《90평생 평화가의 단어가 이렇게 벅찬 말인줄 오늘 처음 알게 되었다.》고 자기 심정을 터놓았다. 본사기자

은 겨레와 세인이 지켜보는 판문점에는 한그루의 소나무가 푸른 아지를 한껏 펼치고있다.

지난해 4월 판문점수뇌상봉의 날에 북남수뇌분들께서 평화번영을 기원하여 함께 심으신 소나무이다.

한해가 흘렀으니 소나무의 키도 자랐으리라.

소나무는 우리 민족의 오랜 력사와 문화를 간직한 나무이다. 예로부터 조선사람은 소나무술에서 나와 소나무향배를 맡으며 자라고 죽어서도 술에 묻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오고 있다. 소나무와 조선민족은 정령 뉘수 없는것이기도 해서 바귀고 세시대가 려동하던 뜻깊은 그날 수많은 나무들중에서도 소나무를 심었을것이다. 순결하고 강직한 소나무의 그 상상대로 민족이 하나가 되어 북남관계의 앞길을 깨끗이 개척해나가지고 북남의 손에 떠날

려 뿌리를 억세게 내리운 소나무가 아닌가. 소나무의 강직함처럼 세월의 모진 역풍을 이겨내고 민족자주의 길을 꿰뚫어 걸어갈 때 평화번영과 통일의 날도 성큼 오게 되리니 민족의 흥성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켜보는 판문점의 소나

물인데도 신념을 잃지 말라 고 언제나 겨레를 일깨워주는 소나무이다.

하기에 판문점에 소나무를 심으신 력사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한몸이 그대로 밀거름이 되고 소중한 이 뿌리를 덜어주는 흙이 되려는 마음, 비바람을

막아주는 바람막이가 되려는 마음가짐으로 이 나무와 함께 빛을 잃지 않는다. 절벽우에서도 뿌리를 뻗치고 그 억센 기상을 뽐낸다. 판문점의 소나무는 단순히 기념으로 심은 나무기 전에 평화번영과 통일의 길에서 우리 겨레와 함께 가는 길동무이다. 북남관계를 막아서는 역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말고 통일위업수행의 길에서 실사 눈속에 파

고 비바람을 막아주는 바람막이가 되는 심정으로 민족의 앞길을 억세게 개척해오신 애민애족헌신의 날과 달들이었다.

우리 겨레가 가는 평화번영과 통일의 길에는 아직도 헤쳐넘어야 할 시련도 많고 장애도 많다.

그러나 민족운명 개척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모두가 평화번영이라는 거목의 뿌리를 덜어주는 흙이 되고 비바람을 막아주는 바람막이가 된다면 역풍도 이겨내고 찬란한 미래에로 갈수 있다.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어디에서 살든, 무슨 일을 하든 판문점의 통일소나무를 언제나 가슴에 안고살자. 그 소나무의 순결하고 억세인 기상으로 우리 민족끼리의 앞길을 슬기롭게, 힘차게 개척해나가지. 고성호

단상

겨레의 마음속에 뿌리내린 통일 소나무

막아주는 바람막이가 되려는 마음가짐으로 이 나무와 함께 빛을 잃지 않는다. 절벽우에서도 뿌리를 뻗치고 그 억센 기상을 뽐낸다. 판문점의 소나무는 단순히 기념으로 심은 나무기 전에 평화번영과 통일의 길에서 우리 겨레와 함께 가는 길동무이다. 북남관계를 막아서는 역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말고 통일위업수행의 길에서 실사 눈속에 파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외국방문에 마음들을 따라세우며

인민과 함께 걸으시는 헌신의 대장정

그리움, 격정... 이 땅에 뜨겁게 흐르는 인민의 마음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로씨야연방에 대한 방문의 길에 오르신지 10년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그 순간부터 인민들은 그이의 발걸음을 자신을 따라세우고 있다.

어디서나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잠 못 이루며 하루를 백날천날맞잡이 여기고 그에게 기쁨드릴 성과를 마련하기 위해 있는 힘껏 열정을 쏟아붓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국가수반들의 외국방문은 흔히 보아오는 일이다. 하지만 조선에서와 같은 그리움의 화폭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전용렬차에 오르시며 따뜻한 손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TV와 신문에서 보으며 인민들은 격정에 눈시울 적시었다.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이 땅에서 만 볼 수 있는 감동깊은 화폭이다.

그 누가 말했는가. 바다에는 밀물과 썰물이 있어도 령도자를 따르는 이 나라 인민의 마음에는 그리움의 밀물만이 있다고...

인민의 마음은 언제나 그이의 곁에 가있다. 지금도 눈에 선하다.

사물치는 바다물속에 뛰어들어 만리대양이라도 헤엄쳐갈듯 경애하는 원수님을 눈물속에 따라서던 장제도와 무도의 병사들, 육류아동병원을 찾으신 그이를 감격에 겨워 에워쌌던 남녀로소들, 산처럼 쌓아놓은 물고기를 훔치며 손질하던 차림새로 그이를 따라서던 동해포구의 너인들, 《원수님, 안아주세요.》하며 그이의 품에 매달리던 애육원의 원아들, 그이께서 오신 소식을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달려나온 김정숙영양방직공장의 처녀방직공들, 조국땅 한끝까지 찾아오신 그이가 라신 차를 따라서 달려리던 라신시의 주민들...

그리움, 격정... 이 땅에 뜨겁게 흐르는 인민의 마음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로씨야연방에 대한 방문의 길에 오르신지 10년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그 순간부터 인민들은 그이의 발걸음을 자신을 따라세우고 있다. 어디서나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잠 못 이루며 하루를 백날천날맞잡이 여기고 그에게 기쁨드릴 성과를 마련하기 위해 있는 힘껏 열정을 쏟아붓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국가수반들의 외국방문은 흔히 보아오는 일이다. 하지만 조선에서와 같은 그리움의 화폭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전용렬차에 오르시며 따뜻한 손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TV와 신문에서 보으며 인민들은 격정에 눈시울 적시었다.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이 땅에서 만 볼 수 있는 감동깊은 화폭이다. 그 누가 말했는가. 바다에는 밀물과 썰물이 있어도 령도자를 따르는 이 나라 인민의 마음에는 그리움의 밀물만이 있다고... 인민의 마음은 언제나 그이의 곁에 가있다. 지금도 눈에 선하다. 사물치는 바다물속에 뛰어들어 만리대양이라도 헤엄쳐갈듯 경애하는 원수님을 눈물속에 따라서던 장제도와 무도의 병사들, 육류아동병원을 찾으신 그이를 감격에 겨워 에워쌌던 남녀로소들, 산처럼 쌓아놓은 물고기를 훔치며 손질하던 차림새로 그이를 따라서던 동해포구의 너인들, 《원수님, 안아주세요.》하며 그이의 품에 매달리던 애육원의 원아들, 그이께서 오신 소식을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달려나온 김정숙영양방직공장의 처녀방직공들, 조국땅 한끝까지 찾아오신 그이가 라신 차를 따라서 달려리던 라신시의 주민들...

진정 공화국이 무엇으로 하여 강하고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혼연일체의 산 화폭들이다. 가를 수 없는 그 모습, 속일 수 없는 그 정, 령도자와 순간도 떨어뜨리는 살수 없는 그 진하다진한 마음은 오직 혈연의 정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

아버지가 멀리 출장을 떠나면 자식들은 아버지를 그리며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린다. 령도자와 멀리 떨어져서도 인민의 그리움은 더더욱 강렬해진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월남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한 공식 친선방문의 길에 오르신지 10년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그 순간부터 인민들은 그이의 발걸음을 자신을 따라세우고 있다. 어디서나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잠 못 이루며 하루를 백날천날맞잡이 여기고 그에게 기쁨드릴 성과를 마련하기 위해 있는 힘껏 열정을 쏟아붓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국가수반들의 외국방문은 흔히 보아오는 일이다. 하지만 조선에서와 같은 그리움의 화폭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전용렬차에 오르시며 따뜻한 손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TV와 신문에서 보으며 인민들은 격정에 눈시울 적시었다.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이 땅에서 만 볼 수 있는 감동깊은 화폭이다. 그 누가 말했는가. 바다에는 밀물과 썰물이 있어도 령도자를 따르는 이 나라 인민의 마음에는 그리움의 밀물만이 있다고... 인민의 마음은 언제나 그이의 곁에 가있다. 지금도 눈에 선하다. 사물치는 바다물속에 뛰어들어 만리대양이라도 헤엄쳐갈듯 경애하는 원수님을 눈물속에 따라서던 장제도와 무도의 병사들, 육류아동병원을 찾으신 그이를 감격에 겨워 에워쌌던 남녀로소들, 산처럼 쌓아놓은 물고기를 훔치며 손질하던 차림새로 그이를 따라서던 동해포구의 너인들, 《원수님, 안아주세요.》하며 그이의 품에 매달리던 애육원의 원아들, 그이께서 오신 소식을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달려나온 김정숙영양방직공장의 처녀방직공들, 조국땅 한끝까지 찾아오신 그이가 라신 차를 따라서 달려리던 라신시의 주민들...

가를 수 없는 그 모습, 속일 수 없는 그 정, 령도자와 순간도 떨어뜨리는 살수 없는 그 진하다진한 마음은 오직 혈연의 정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 아버지가 멀리 출장을 떠나면 자식들은 아버지를 그리며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린다. 령도자와 멀리 떨어져서도 인민의 그리움은 더더욱 강렬해진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월남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한 공식 친선방문의 길에 오르신지 10년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그 순간부터 인민들은 그이의 발걸음을 자신을 따라세우고 있다. 어디서나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잠 못 이루며 하루를 백날천날맞잡이 여기고 그에게 기쁨드릴 성과를 마련하기 위해 있는 힘껏 열정을 쏟아붓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국가수반들의 외국방문은 흔히 보아오는 일이다. 하지만 조선에서와 같은 그리움의 화폭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전용렬차에 오르시며 따뜻한 손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TV와 신문에서 보으며 인민들은 격정에 눈시울 적시었다.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이 땅에서 만 볼 수 있는 감동깊은 화폭이다. 그 누가 말했는가. 바다에는 밀물과 썰물이 있어도 령도자를 따르는 이 나라 인민의 마음에는 그리움의 밀물만이 있다고... 인민의 마음은 언제나 그이의 곁에 가있다. 지금도 눈에 선하다. 사물치는 바다물속에 뛰어들어 만리대양이라도 헤엄쳐갈듯 경애하는 원수님을 눈물속에 따라서던 장제도와 무도의 병사들, 육류아동병원을 찾으신 그이를 감격에 겨워 에워쌌던 남녀로소들, 산처럼 쌓아놓은 물고기를 훔치며 손질하던 차림새로 그이를 따라서던 동해포구의 너인들, 《원수님, 안아주세요.》하며 그이의 품에 매달리던 애육원의 원아들, 그이께서 오신 소식을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달려나온 김정숙영양방직공장의 처녀방직공들, 조국땅 한끝까지 찾아오신 그이가 라신 차를 따라서 달려리던 라신시의 주민들...

가를 수 없는 그 모습, 속일 수 없는 그 정, 령도자와 순간도 떨어뜨리는 살수 없는 그 진하다진한 마음은 오직 혈연의 정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 아버지가 멀리 출장을 떠나면 자식들은 아버지를 그리며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린다. 령도자와 멀리 떨어져서도 인민의 그리움은 더더욱 강렬해진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월남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한 공식 친선방문의 길에 오르신지 10년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그 순간부터 인민들은 그이의 발걸음을 자신을 따라세우고 있다. 어디서나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잠 못 이루며 하루를 백날천날맞잡이 여기고 그에게 기쁨드릴 성과를 마련하기 위해 있는 힘껏 열정을 쏟아붓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국가수반들의 외국방문은 흔히 보아오는 일이다. 하지만 조선에서와 같은 그리움의 화폭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전용렬차에 오르시며 따뜻한 손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TV와 신문에서 보으며 인민들은 격정에 눈시울 적시었다.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이 땅에서 만 볼 수 있는 감동깊은 화폭이다. 그 누가 말했는가. 바다에는 밀물과 썰물이 있어도 령도자를 따르는 이 나라 인민의 마음에는 그리움의 밀물만이 있다고... 인민의 마음은 언제나 그이의 곁에 가있다. 지금도 눈에 선하다. 사물치는 바다물속에 뛰어들어 만리대양이라도 헤엄쳐갈듯 경애하는 원수님을 눈물속에 따라서던 장제도와 무도의 병사들, 육류아동병원을 찾으신 그이를 감격에 겨워 에워쌌던 남녀로소들, 산처럼 쌓아놓은 물고기를 훔치며 손질하던 차림새로 그이를 따라서던 동해포구의 너인들, 《원수님, 안아주세요.》하며 그이의 품에 매달리던 애육원의 원아들, 그이께서 오신 소식을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달려나온 김정숙영양방직공장의 처녀방직공들, 조국땅 한끝까지 찾아오신 그이가 라신 차를 따라서 달려리던 라신시의 주민들...

가를 수 없는 그 모습, 속일 수 없는 그 정, 령도자와 순간도 떨어뜨리는 살수 없는 그 진하다진한 마음은 오직 혈연의 정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 아버지가 멀리 출장을 떠나면 자식들은 아버지를 그리며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린다. 령도자와 멀리 떨어져서도 인민의 그리움은 더더욱 강렬해진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월남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한 공식 친선방문의 길에 오르신지 10년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그 순간부터 인민들은 그이의 발걸음을 자신을 따라세우고 있다. 어디서나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잠 못 이루며 하루를 백날천날맞잡이 여기고 그에게 기쁨드릴 성과를 마련하기 위해 있는 힘껏 열정을 쏟아붓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국가수반들의 외국방문은 흔히 보아오는 일이다. 하지만 조선에서와 같은 그리움의 화폭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전용렬차에 오르시며 따뜻한 손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TV와 신문에서 보으며 인민들은 격정에 눈시울 적시었다.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이 땅에서 만 볼 수 있는 감동깊은 화폭이다. 그 누가 말했는가. 바다에는 밀물과 썰물이 있어도 령도자를 따르는 이 나라 인민의 마음에는 그리움의 밀물만이 있다고... 인민의 마음은 언제나 그이의 곁에 가있다. 지금도 눈에 선하다. 사물치는 바다물속에 뛰어들어 만리대양이라도 헤엄쳐갈듯 경애하는 원수님을 눈물속에 따라서던 장제도와 무도의 병사들, 육류아동병원을 찾으신 그이를 감격에 겨워 에워쌌던 남녀로소들, 산처럼 쌓아놓은 물고기를 훔치며 손질하던 차림새로 그이를 따라서던 동해포구의 너인들, 《원수님, 안아주세요.》하며 그이의 품에 매달리던 애육원의 원아들, 그이께서 오신 소식을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달려나온 김정숙영양방직공장의 처녀방직공들, 조국땅 한끝까지 찾아오신 그이가 라신 차를 따라서 달려리던 라신시의 주민들...

있고 어디서나 그이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운다.

누구라 할것없이 세계지도를 마주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금쯤은 어디에 계실까 하는 생각으로 심장을 뚫고 일기예보를 들으면서도 그이께서 계시는 곳의 날씨를 어떨까 하는 걱정으로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최고생산실적을 기록했을 때에도 어서 빨리 경애하는 원수님께 보고드리고 싶은 심정으로 가슴 불태우고 과학연구사업에서의 성과와 세계품개발의 기본 소식이 전해질 때에도 마음은 그이 계시는 곳으로만 달려가고 있다.

그 어디에 가시어서도 령도자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이 있고 인민의 마음속에는 령도자가 계신다.

지난 3월 월남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한 공식친선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경애하는 원수님 절절히 하신 말씀.

외국방문기간 늘 그림고 가고 싶은 곳이 조국입니다. 조국을 가까이 할수록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이의 말씀을 되새겨보는 인민의 마음속에는 그 위대한 사랑의 세계가 가슴뜨겁게 흘러들고 있다.

인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좋은 일을 하였다는 소식을 들으시던 천사만사를 제쳐놓고 눈보라가 기승을 부려도, 폭열이 쏟아져 내려도, 비내리는 산골의 진창길과 파도사나운 바다길이 앞을 가로막아도 수천리를 단숨에 달려가시는분, 내 저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한개 모래알이 되어줄 수는 없을까요, 일일이 손을 잡아주고싶고 자신의 등에 업어주며 뼈와 살, 피도 다 바치고싶은것이 자신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속에는 오로지 인민밖에 없으시다.

하기에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 가시는 길이야말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헌신의 길이라는것을 인생의 철리로 심장깊이 새기고있으며 따뜻한 그 손길에 운명도 미래도 전적으로 다 맡기고있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 가시는 길은 언제나 인민과 함께 가시는 길이다. 그이의 력사적인 로씨야연방에 대한 방문의 길에는 인민이 모두가 따라서 가고 있다. 광활한 로씨야대륙을 달리는 전용렬차에도 그이의 안면만을 바라보는 인민의 마음이 실려있고 그이 방문하시는 곳마다에도 인민들의 마음이, 뜨거운 시선들이 뒤따르고 있다.

부러도, 폭열이 쏟아져 내려도, 비내리는 산골의 진창길과 파도사나운 바다길이 앞을 가로막아도 수천리를 단숨에 달려가시는분, 내 저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한개 모래알이 되어줄 수는 없을까요, 일일이 손을 잡아주고싶고 자신의 등에 업어주며 뼈와 살, 피도 다 바치고싶은것이 자신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속에는 오로지 인민밖에 없으시다.

하기에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 가시는 길이야말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헌신의 길이라는것을 인생의 철리로 심장깊이 새기고있으며 따뜻한 그 손길에 운명도 미래도 전적으로 다 맡기고있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 가시는 길은 언제나 인민과 함께 가시는 길이다. 그이의 력사적인 로씨야연방에 대한 방문의 길에는 인민이 모두가 따라서 가고 있다. 광활한 로씨야대륙을 달리는 전용렬차에도 그이의 안면만을 바라보는 인민의 마음이 실려있고 그이 방문하시는 곳마다에도 인민들의 마음이, 뜨거운 시선들이 뒤따르고 있다.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 가시는 길이야말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헌신의 길이라는것을 인생의 철리로 심장깊이 새기고있으며 따뜻한 그 손길에 운명도 미래도 전적으로 다 맡기고있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 가시는 길은 언제나 인민과 함께 가시는 길이다. 그이의 력사적인 로씨야연방에 대한 방문의 길에는 인민이 모두가 따라서 가고 있다. 광활한 로씨야대륙을 달리는 전용렬차에도 그이의 안면만을 바라보는 인민의 마음이 실려있고 그이 방문하시는 곳마다에도 인민들의 마음이, 뜨거운 시선들이 뒤따르고 있다.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 가시는 길이야말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헌신의 길이라는것을 인생의 철리로 심장깊이 새기고있으며 따뜻한 그 손길에 운명도 미래도 전적으로 다 맡기고있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 가시는 길은 언제나 인민과 함께 가시는 길이다. 그이의 력사적인 로씨야연방에 대한 방문의 길에는 인민이 모두가 따라서 가고 있다. 광활한 로씨야대륙을 달리는 전용렬차에도 그이의 안면만을 바라보는 인민의 마음이 실려있고 그이 방문하시는 곳마다에도 인민들의 마음이, 뜨거운 시선들이 뒤따르고 있다.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 가시는 길이야말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헌신의 길이라는것을 인생의 철리로 심장깊이 새기고있으며 따뜻한 그 손길에 운명도 미래도 전적으로 다 맡기고있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 가시는 길은 언제나 인민과 함께 가시는 길이다. 그이의 력사적인 로씨야연방에 대한 방문의 길에는 인민이 모두가 따라서 가고 있다. 광활한 로씨야대륙을 달리는 전용렬차에도 그이의 안면만을 바라보는 인민의 마음이 실려있고 그이 방문하시는 곳마다에도 인민들의 마음이, 뜨거운 시선들이 뒤따르고 있다.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 가시는 길이야말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헌신의 길이라는것을 인생의 철리로 심장깊이 새기고있으며 따뜻한 그 손길에 운명도 미래도 전적으로 다 맡기고있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 가시는 길은 언제나 인민과 함께 가시는 길이다. 그이의 력사적인 로씨야연방에 대한 방문의 길에는 인민이 모두가 따라서 가고 있다. 광활한 로씨야대륙을 달리는 전용렬차에도 그이의 안면만을 바라보는 인민의 마음이 실려있고 그이 방문하시는 곳마다에도 인민들의 마음이, 뜨거운 시선들이 뒤따르고 있다.

각계층 인민들의 목소리

자랑찬 과학기술 성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로씨야연방에 대한 력사적인 방문소식이 전해진 때부터 우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는 뜨거운 흥분의 열기가 차넘치고 있다.

지금 우리모두는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과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외국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안심히 돌아오시기를 충심으로 바라고 있다. 그이께서 계시어 강대하고 존엄높은 우리 국가가 있고 우리 인민모두의 영원한 행복이 있을을 누구나 가슴뿌듯이 느끼고 있다.

에국헌신의 발걸음 따라

학을 현지도하시면서 주체교육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이번 시정연설에서 현대교육 발전추세에 맞게 교육의 질을 높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사회주의건설을 떠메고 나갈 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할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우리 대학의 교직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기대와 믿음을

추대되신것과 관련하여 따뜻한 축전도 보내어왔다.

오래전 로씨야연방을 방문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최대의 존경을 표했던 부천대통령이 오늘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자기 나라에 정중히 초청하여 두 나라 친선관계는 세대를 이어 계속되고 있다.

세인이 경모하는 위인을 모시여 우리 조국의 존엄도, 지위도 빛나고 있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외국방문에서 큰 성과를 거두시고 건강하신 몸으로 조국에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하는바이다.

송영순

위인을 모시여 존엄높은 민족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로씨야연방 방문소식에 접하니 생각이 깊어진다.

내 나이 92살이다. 오래 살아오면서 내가 체험하는바이지만 정말이지 대대로 절세의 위인들을 높이 모시여 우리 조국은 존엄높다.

내가 어렵게 망국노의 설움속에 살던 그 시절에는 솔한 조선사람들이 연해주로, 만주로 뿔뿔이 흩어져가며 나라잃은 설움을 안고 비분사구에 몸부림치야 했다.

그때 세상사람들의 눈에는 조선

분사기자 김춘경

다란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좋은 한해》. 《(자력갱생의 가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는 전투적주호를 추켜든 조선인민》. 《김정은시대에 조선은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정신에 의거하여 더욱 발전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의 위력을 배가해주고 자립경제발전을 추동하는 과학기술발전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 온 나라에 인재중시, 교육중시의 거대한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

자력갱생의 전통을 이어오면서 이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는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것이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뿌리내렸고 공화국인민은 불가능을 모르는 정신력의 강자로 되었다.

이런 인민의 투쟁이 있어 공화국은 자기의 70여년사에 남들이 상상할수도, 흉내내거나 이룩할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전변을 आरो새길수 있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자력갱생의 가치높이 온갖 시련과 난관을 박차고 비약하는 주체조선의 위력에 대한 경탄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은 조선의 경제가 많은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장성하고있

다. 《(자력갱생의 가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는 전투적주호를 추켜든 조선인민》. 《김정은시대에 조선은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정신에 의거하여 더욱 발전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의 위력을 배가해주고 자립경제발전을 추동하는 과학기술발전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 온 나라에 인재중시, 교육중시의 거대한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

자력갱생의 전통을 이어오면서 이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는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것이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뿌리내렸고 공화국인민은 불가능을 모르는 정신력의 강자로 되었다.

이런 인민의 투쟁이 있어 공화국은 자기의 70여년사에 남들이 상상할수도, 흉내내거나 이룩할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전변을 आरो새길수 있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자력갱생의 가치높이 온갖 시련과 난관을 박차고 비약하는 주체조선의 위력에 대한 경탄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은 조선의 경제가 많은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장성하고있

다. 《(자력갱생의 가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는 전투적주호를 추켜든 조선인민》. 《김정은시대에 조선은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정신에 의거하여 더욱 발전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의 위력을 배가해주고 자립경제발전을 추동하는 과학기술발전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 온 나라에 인재중시, 교육중시의 거대한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

자력갱생의 전통을 이어오면서 이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는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것이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뿌리내렸고 공화국인민은 불가능을 모르는 정신력의 강자로 되었다.

이런 인민의 투쟁이 있어 공화국은 자기의 70여년사에 남들이 상상할수도, 흉내내거나 이룩할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전변을 आरो새길수 있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자력갱생의 가치높이 온갖 시련과 난관을 박차고 비약하는 주체조선의 위력에 대한 경탄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은 조선의 경제가 많은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장성하고있

다. 《(자력갱생의 가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는 전투적주호를 추켜든 조선인민》. 《김정은시대에 조선은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정신에 의거하여 더욱 발전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의 위력을 배가해주고 자립경제발전을 추동하는 과학기술발전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 온 나라에 인재중시, 교육중시의 거대한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

자력갱생의 전통을 이어오면서 이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는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것이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뿌리내렸고 공화국인민은 불가능을 모르는 정신력의 강자로 되었다.

이런 인민의 투쟁이 있어 공화국은 자기의 70여년사에 남들이 상상할수도, 흉내내거나 이룩할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전변을 आरो새길수 있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자력갱생의 가치높이 온갖 시련과 난관을 박차고 비약하는 주체조선의 위력에 대한 경탄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은 조선의 경제가 많은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장성하고있

다. 《(자력갱생의 가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는 전투적주호를 추켜든 조선인민》. 《김정은시대에 조선은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정신에 의거하여 더욱 발전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의 위력을 배가해주고 자립경제발전을 추동하는 과학기술발전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 온 나라에 인재중시, 교육중시의 거대한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

자력갱생의 전통을 이어오면서 이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는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것이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뿌리내렸고 공화국인민은 불가능을 모르는 정신력의 강자로 되었다.

이런 인민의 투쟁이 있어 공화국은 자기의 70여년사에 남들이 상상할수도, 흉내내거나 이룩할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전변을 आरो새길수 있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자력갱생의 가치높이 온갖 시련과 난관을 박차고 비약하는 주체조선의 위력에 대한 경탄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자랑찬 과학기술 성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로씨야연방에 대한 력사적인 방문소식이 전해진 때부터 우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는 뜨거운 흥분의 열기가 차넘치고 있다.

지금 우리모두는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과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외국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안심히 돌아오시기를 충심으로 바라고 있다. 그이께서 계시어 강대하고 존엄높은 우리 국가가 있고 우리 인민모두의 영원한 행복이 있을을 누구나 가슴뿌듯이 느끼고 있다.

에국헌신의 발걸음 따라

학을 현지도하시면서 주체교육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이번 시정연설에서 현대교육 발전추세에 맞게 교육의 질을 높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사회주의건설을 떠메고 나갈 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할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우리 대학의 교직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기대와 믿음을

추대되신것과 관련하여 따뜻한 축전도 보내어왔다.

오래전 로씨야연방을 방문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최대의 존경을 표했던 부천대통령이 오늘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자기 나라에 정중히 초청하여 두 나라 친선관계는 세대를 이어 계속되고 있다.

세인이 경모하는 위인을 모시여 우리 조국의 존엄도, 지위도 빛나고 있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외국방문에서 큰 성과를 거두시고 건강하신 몸으로 조국에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하는바이다.

송영순

다란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좋은 한해》. 《(자력갱생의 가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는 전투적주호를 추켜든 조선인민》. 《김정은시대에 조선은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정신에 의거하여 더욱 발전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의 위력을 배가해주고 자립경제발전을 추동하는 과학기술발전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 온 나라에 인재중시, 교육중시의 거대한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

자력갱생의 전통을 이어오면서 이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는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것이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뿌리내렸고 공화국인민은 불가능을 모르는 정신력의 강자로 되었다.

이런 인민의 투쟁이 있어 공화국은 자기의 70여년사에 남들이 상상할수도, 흉내내거나 이룩할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전변을 आरो새길수 있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자력갱생의 가치높이 온갖 시련과 난관을 박차고 비약하는 주체조선의 위력에 대한 경탄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은 조선의 경제가 많은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장성하고있

다. 《(자력갱생의 가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는 전투적주호를 추켜든 조선인민》. 《김정은시대에 조선은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정신에 의거하여 더욱 발전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의 위력을 배가해주고 자립경제발전을 추동하는 과학기술발전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 온 나라에 인재중시, 교육중시의 거대한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

자력갱생의 전통을 이어오면서 이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는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것이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뿌리내렸고 공화국인민은 불가능을 모르는 정신력의 강자로 되었다.

이런 인민의 투쟁이 있어 공화국은 자기의 70여년사에 남들이 상상할수도, 흉내내거나 이룩할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전변을 आरो새길수 있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자력갱생의 가치높이 온갖 시련과 난관을 박차고 비약하는 주체조선의 위력에 대한 경탄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은 조선의 경제가 많은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장성하고있

다. 《(자력갱생의 가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는 전투적주호를 추켜든 조선인민》. 《김정은시대에 조선은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정신에 의거하여 더욱 발전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의 위력을 배가해주고 자립경제발전을 추동하는 과학기술발전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 온 나라에 인재중시, 교육중시의 거대한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

자력갱생의 전통을 이어오면서 이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는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것이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뿌리내렸고 공화국인민은 불가능을 모르는 정신력의 강자로 되었다.

이런 인민의 투쟁이 있어 공화국은 자기의 70여년사에 남들이 상상할수도, 흉내내거나 이룩할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전변을 आरो새길수 있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자력갱생의 가치높이 온갖 시련과 난관을 박차고 비약하는 주체조선의 위력에 대한 경탄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은 조선의 경제가 많은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장성하고있

다. 《(자력갱생의 가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는 전투적주호를 추켜든 조선인민》. 《김정은시대에 조선은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정신에 의거하여 더욱 발전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의 위력을 배가해주고 자립경제발전을 추동하는 과학기술발전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 온 나라에 인재중시, 교육중시의 거대한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

자력갱생의 전통을 이어오면서 이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는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것이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뿌리내렸고 공화국인민은 불가능을 모르는 정신력의 강자로 되었다.

이런 인민의 투쟁이 있어 공화국은 자기의 70여년사에 남들이 상상할수도, 흉내내거나 이룩할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전변을 आरो새길수 있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자력갱생의 가치높이 온갖 시련과 난관을 박차고 비약하는 주체조선의 위력에 대한 경탄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은 조선의 경제가 많은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장성하고있

다. 《(자력갱생의 가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는 전투적주호를 추켜든 조선인민》. 《김정은시대에 조선은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정신에 의거하여 더욱 발전하고 있다》...

